독자

독자 여러분의 글·사진·만화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우송해 드립니다. 보내실 때는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주십시오. 또 현대불교에 대한 의견·제안·제보도 받습니다.

〈보낼 곳〉우(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 (02)722-4162 FAX : (02)737-0698
천리안 : aeum 하이텔 : 34713 나우누리 : sutta
부다피아 인터넷 : gobaoou@buddhapia.co.kr

현대불교를 읽고

난민구제등 동체대비 말보다 실천

3국불교대회 결의안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된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서울대회의 관련 기사를 읽고 몇가지 느낀 소감을 적고자 한다.

이번 대회에서 3국은 지구촌의 환경보전과 난민구제, 문화교류를 위한 기구를 설치한다는 소식이다.

특히 이 가운데 환경보전과 난민구제방안으로 매년 3국을 순방하며 '자연환경보전 국제교류우호 세계평화기원회'를 봉행한다는 것에 대해 한번 더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제는 환경문제가 어느 한나라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모든 나라들이 환경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불교계가 지구촌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한다. 부처님의 동체대비심을 바탕으로 세계는 한가족이라는 명제앞에 언어와 인종,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어 환경보호에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으면 한다.

한가지 제기한다면 간혹 이러한 사안들이 행사를 위한 계획에 그치고마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번대회에서 채택된 이러한 안들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 불교의 발전과 지구촌환경살리기에 일조를 하기 바란다.

〈조성호·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남자불자 신행기회 확대방안 필요

불교인구 2%증가

지난 9월 11일자 불교인구가 늘었고 그중 남성불자들이 가장 많이 늘었다는 기사를 읽고 실로 공감한다.

최근들어 도심포교당을 비롯 사찰에는 예전과는 달리 여성불자들뿐 아니라 남자들의 발걸음이 잦아지고 있다.

우리 가정에도 지금까지는 저 혼자 절에가 공양을 올리고 가정의 행복을 위해 기도를 해왔고 그것이 당연한 일인 양 여겨온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들어 사찰에서는 초하루, 보름, 관음기도뿐만 아니라 각종 법회와 교양대학이 열리고 있어 남자들에게도 보다 더 많은 신행활동을 할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 셈이다.

이로인해 사찰에 가면 멋적어 서성이던 남자들의 모습들은 사라지고 오히려 기도와 신행, 사회활동에 열성적으로 나서고 있는 추세다.

특히 불교의 맹점으로 남아있었던 거사들에 대한 포교전망을 밝게 해줬다는 사실에 대해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교계지도자들은 남성불자들의 수가 늘었다는 숫적 증가에 안주하지 말고 남성들을 위한 신행활동의 장을 더많이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박보리행·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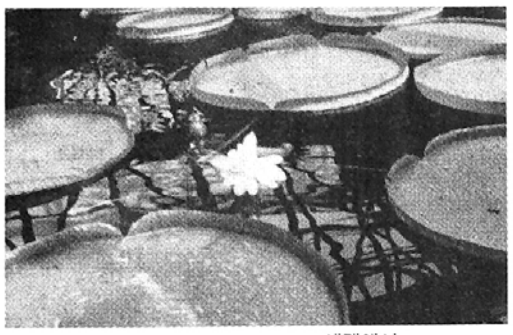
염주·경전등 곁에두고 '나는불자' 자긍심 갖자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불자들은 대부분 신행활동에 있어 소극적인 것 같아 안타깝다.

부처님 도량을 찾는 불자들 모습을 유심히 살펴보면 이런 소극적인 의식이 강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일주문에 와서야 염주와 경전을 핸드백 속에서 꺼내들기 시작한다.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다. 불자들끼리 만나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합장을 할까말까 망설이기 일쑤다. 그래서인지 포교에 대한 가치인식과 활동은 너무나 미약하다.

굳이 타종교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이제는 불교도 사회의 일각에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하고 만중생을 구제하는 종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불자들의 사고방식이 일신돼야 한다고 생각된다.

〈김재권·경기도 남양주시〉



독자사진

세계서 가장 큰 연잎 세계에서 가장 큰 잎을 가진 빅토리아 수련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9일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여미지 식물원에서 꽃망울을 터트렸다. 희귀종인 이 수련은 주로 남미 아마존강 유역에서 자라는 식물로 직경 2m의 잎에다 꽃은 직경 10~20㎝로 순백색으로 꽃핀지 하루가 지나면 진홍색으로 변한다. 〈사진=한라불교신문사 제공〉

불우이웃과 함께하는 한가위 자비행 기대

어느새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팔월한가위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너나할것없이 마음은 벌써 고향으로 향해 있고 유명관광지나 해외여행의 꿈으로 부풀어 있다. 하지만 우리주변을 살펴보면 이러한 명절이 다가오면 오히려 더 쓸쓸함을 느끼는 이웃들이 의외로 많다.

부처님께서는 보시행을 강조하셨다. 불자라면 이러한 민족의 최대 명절에 이웃을 한번 살펴보자. 아들같은 소년소녀 가장들이 고사리손으로 라면을 끓여 끼니를 잇고 거동이 불편한 무의탁 독거노인들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공원이나 경로당을 배회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을 것이다.

예로부터 만행의 근본으로 여겨왔던 효(孝)사상이 어느새 퇴색되고 있지 않나 우려된다.

'더도말고 덜도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추석에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펼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일 것이다.

〈김성구·경북 경주시〉

'가족법회' 개설사찰 유아놀이시설 '부족'

최근 '가족법회'라는 가족단위의 법회를 마련하는 사찰이 늘고 있으나 부대시설은 부족한 것 같다.

유익한 가족법회가 열린다는 이웃 불자의 이야기를 듣고 지난 일요일 가족법회에 동참하게 됐다. 그러나 법회의 운영은 기존 법회와 유사했다. 다만 법회명과 성별이나 남녀의 구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것밖에는 별다른 차이점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가족들을 위한 이러한 법회를 이끌고자 준비한 사찰측에 대해 고마움을 느끼며 법회에 참석했다.

법회가 이어지는 동안 사건(?)이 발생됐다. 한 아이가 울음을 터트린 것이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감로수와 같은 주지스님의 법문에 귀기울이며 조용한 법회장이 갑자기 어수선해진 것이다. 우연하고 당연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법회에 참석한 저로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어린아이들에 대한 조그마한 관심과 대책을 강구됐으면 이러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회장에 유아들과 동행하는 것은 당연하다. 사찰측에서 유아들을 위한 조그마한 배려가 있었다면 이러한 실수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원상·대구시 수성구〉

나의 제언

'재적사찰 갖기'의 과제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종교와 각종 공사조직이 서로의 이해관계에 얽혀 난립하고 있다.

특히 종교간의 신도확보 경쟁은 사회가 점점 조직적이고 정보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다른 분야처럼 체계적으로 신도관리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계종이 '재적사찰갖기'와 '신도등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늦은 감이 있으나 그래도 시의 적절한 불사라고 생각된다.

앞으로 '재적사찰갖기'와 '신도등록사업'이 좀더 체계적이고 불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려면 다음과 같은 과제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신도교육 및 조직의 활성화문제다. 신도관리는 기존의 신도들을 관리한다는 시각만으로 운영하기보다는 이제는 새로운 신도를 발굴한다는 시각에서 출발하는 자세가 적극 필요하다.

스님들이 불교의 대중포교를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하며 신도들의 여러가지 환경을 고려한 다양한 법회와 행사를 통한 불교의 대중화가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최근 몇년 동안 도심의 포교당(원)에서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로 각종 법회를 통한 새로운 신도를 확보해 나가면서 생활불교 실천불교의 구현과 불교의 사회적 봉사활동을 통한 스님들과 불자들의 인식전환은 한국불교의 미래을 밝게 하고 있다.

또 조계종 총무원과 교구본사 및 단위 사찰이 상호협력하여 신도관리와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교육프로그램과 신도관리 전산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하며 종단차원에서 각종 지원과 포교자료가 일원화되고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튼 '재적사찰갖기'와 '신도등록사업'의 성패는 사찰주지와 소임자 그리고 재가신도들이 종단의 근본취지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 앞으로 불교최대종단인 조계종이 새롭게 태어나 불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전파할 수 있는 촉진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종후·고양 노적사 주지〉

현대불교 생활광고

"본 란은 독자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 꾸며지는 생활광고난입니다. 최소의 비용, 최대의 효과 현대불교 생활광고란에서 찾으십시오"

•생활용품 •개인업체 •불교관련용품 •정보교환, 소식 •자체홍보 •안내 •각종행사 •신상품소개등

※단, 독자 여러분의 정서에 위배되거나 본지의 의도와 맞지 않는 내용은 제외됩니다.

문의
(02)737-8881(광고국)
팩스(02)737-0697

보리수
취급품목 | 각종수입향, 염주 | 일체 불교악세사리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神秘한 東洋哲學
신생아 작명 역학 개인지도
선남·선녀궁합, 학생적성
☎738-2045,2046
현대불교신문사 앞
韓國民俗哲學研究所

지리산 수행 토굴 안내
위치 : 경남 하동군 악연면(지리산줄기) 산새수려 주위의 폭포
토굴터로서 수행 정진의 최적지
연락처 : 0671-33-8918

절터 최적지
장소 : 청평 덕현리 정남향 국도 800M 경관수려
평수 : 2785평(일부대지) 평당가격 10만원
연락처 : 0346)594-4974

사찰안내
개인사정상 사찰 운영하실 분을 찾습니다.
위치 : 충남
비용 : 1,500만원
연락처 : 0463-32-2805

공양주 보살님을 모십니다
가족과 함께하셔도 무방하고 가족중에 몸이 아프신 분은 스님께서 약초로 보살펴 드립니다.
청명암 연락처 : 0374-34-1652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도심속의 포교총림 "부루나 포교원"에서는 기도스님을 모십니다
- 부루나 포교원 대중 합장 -
Tel : (032)576-9741
인천시 서구 가좌동 3동 84-5
대한불교조계종 부루나포교원

사찰안내
산세 수려청정한 곳에 사찰 운영하실분을 찾습니다
▣ 목포중심지
▣ 법당 : 23평, 요사체 : 20평
▣ 건평 : 200평
▣ 물 지하수, 교통편리
▣ 비용 : 상담후 가격절충
연락처 : (062)525-4417 011-579-9865

탁자, 닫집, 법상, 문짝, 불교조각
주요불사업적
• 합천(해인사) : 대적광전 법상 경상
• 의왕시(대원사) : 대웅전 수미단 닫집 문짝
• 서울(백화사) : 법당 수미단 응각 복전함
• 음성(삼보사) : 대웅전 문짝
• 화천(법장사) : 대웅전 명부전 문짝
• 충무(삼덕사) : 대웅전 수미단 법상 경탁
• 마산(진관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포천(약천사) : 대웅전 문짝 닫집
• 단양(천진사) : 대웅전수미단닫집경탁경상
• 서울(학림사) : 회관 불사, 그외 다수 사찰
대진(전승)공예사
핸드폰 011-282-4609
자택 02-248-4609
공장 0346-571-9538
호출 012-210-1401
趙貴王 합장

동불·탱화 순금불사·불상제작

탱화사
주소 : 성북구 정능3동 684-36
연락처 918-4077
탱화사 박상수 합장

포교당 양도
▶ 구리시 중심가 최고 요지
▶ 9년 전법 도량
▶ 약 40평 (100~150명 법회가능)
▶ 비용 : 4,000만원(상담)
일신상의 이유로 급히 양도코
관음정사
전화 :0346)67-2812
주소 :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05-1
박인성 법사

寺刹 및 古殿 建築木材
■ 木材放火劑 (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 (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 방부제 목재(원목) 수입판매
■ 木材탈취제 (청변균제거)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삼원B/D(을지로 2가)
문의 : 02)266-2629, 팩스 : 02)266-2679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불교공예

본 불교공예에서는 20년 전통의 신용과 기술로써 각 사암의 법당을 장엄하여 천년을 기리 남을 정성을 다하여 봉사하겠습니다.
대표 임태복 합장
진도 쌍계사 : 시왕전, 불단
속초 구복암 : 천불전, 닫집, 산신각, 문짝
제주도 원각사 : 불단, 닫집, 범상등외
설악산 오세암 : 천불전
삼각산 연화정사 : 천불전, 닫집외 등
구로동 원융사 : 불단, 문짝
불교여래원 : 불단, 운각, 경탁외
망우리 보문정사 : 불단
안양 약수암 : 불단, 닫집, 천불외 다수 사찰 불사
연락처 : (0346)553-6480